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리만** 자전거용 킥스탠드 펌프

‘맥가이버 펌프’로 자전거족 고민 한번에 해결

(받침대·펌프·후미등·타이어 레버 등 다기능)

‘비싼 자전거에는 왜 받침대(킥스탠드)가 없을까?’

김필호 리만 대표의 창업 결심은 간단한 의문에서 비롯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김 대표는 2013년 100만원 넘게 주고 산 로드바이크(사이클)를 탈 때마다 한 가지 불편을 느꼈다. 세울 때가 문제였다. 받침대가 없어 높이거나 벽에 기대야만 했다. 고가 자전거는 무게를 줄이고 멋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받침대가 없었다. 바퀴가 얇아 바람이 빠지거나 종종 펌프가 나는 것도 골치 아팠다. 바람을 넣는 펌프와 펌프에 대비한 장비도 따로 갖고 다녀야 했다.

펌프를 가볍고 얇게 제작해 이를 자전거 받침대로도 사용하는 제품이 있으면 ‘대박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대표는 18년을 다닌 병원에 2014년 사표를 던지고 창업에 나섰다.

◆받침대·펌프 등 4개 기능 갖춰 김 대표가 2년여의 개발 끝에 내놓은 ‘킥스탠드 펌프’는 받침대와 펌프, 여기에 자전거 후미등과 타이어 레버 기능까지 갖춘 다용도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자전거를 세우는 받침대 역할을 주로 한다. 주행 중 받침대를 접으면 끝 부분에 불이 들어와 후미등이 된다. 바퀴에 바람을 넣고 싶을 땐 자전거에서 떼어내 펌프로 쓸 수 있다. 김 대표는 “기존 휴대용 펌프는 통상 60PSI(압력 단위로 1PSI는 약 0.068기압)로 바람을 주입하지만

이 제품은 120PSI까지 쉽게 들어가고 최대 200PSI까지 가능해 시중 대부분 자전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웬만한 대형 펌프 못지않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게다가 타이어에 펌프가 낫을 때 고무타이어를 쇠테(팁)와 분리하는 레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기능을 한 제품에 담아냈지만 무게가 197g으로 가벼운 것도 특징이다. 일반 받침대 무게(400~500g)의 절반 수준이다. 제품 개발 때부터 철저한 ‘경량화’에

2014년 창업 2년 만에 개발 고비 때마다 마니아들 응원

중국서 양산 내달부터 판매 미국서 2만개 크라우드펀딩

초점을 맞춘 덕분이다. 광택 소재로 도금 처리를 하는 등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다.

◆자전거 애호가 ‘호평’ 제품 콘셉트는 2년 전에 나왔지만 상용화까지는 난관이 많았다. 이전에 없던 제품이어서 45개 부품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김 대표는 “고무링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일일이 주문을 따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도 오래 걸렸다. 자전거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도

펌프의 반복적 운동을 견뎌내도록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수차례 금형을 새로 만들고 내구성 테스트를 하느라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김 대표가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자전거 애호가들의 큰 호응 덕분. 최근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 제품을 소개했더니 금세 2만달러(약 2200만원)가 모였다. 회사에 전화해 “언제부터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50~60대 장년 ‘자전거족’의 관심이 컸다.

김 대표는 “중국 공장에서 제품 양산에 들어가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며 “네 가지 기능에 더해 와이어 자물쇠까지 넣는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삼미통상-오본국 (02)3662-3255 △리만-킥스탠드 펌프 (02)6925-3537 △오리엔탈 드림-탄소온열매트 (031)352-7601 △코리아정보통신-21.5형 정전압 터치 울인원 PC (02)1588-5178



김필호 리만 대표가 받침대와 펌프, 후미등, 타이어 레버 등의 역할을 하는 ‘킥스탠드 펌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발효식품 용기 ‘숨을 쉰다’

가스 차면 자동 배출 등 아이디어 제품 붐물

뉴스카페



조미제민지가 심해지면서 ‘디톡스’ 효과가 있는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월과 7월로 접히는 매실의 향균·살균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G마켓의 5월 매실 판매량은 전년보다 1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발효식품 수요를 겨냥한 주방용품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다양한 발효음식 전용 보관용기를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발효식품은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하다. 발효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용기 내 압력이 높아져 보관용기가 깨질 수 있다.

락앤락의 ‘숨쉬는 유리용기’(사진)는 2008년 출시 이후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용기에 발효가스가 차면 뚜껑에 부착된 스텔의 실리콘을 통해 가스가 자동으로 배출된다. 뚜껑 내부 패킹과 스텔에 장착된 실리콘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오랫동안 맛과 향

을 유지할 수 있다. 발효용기가 잘 팔리자 락앤락은 최근 ‘인터락 발효용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1인 가구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용량을 줄여 냉장도 문에 보관할 수 있도록 원통형으로 디자인했다. 삼광글라스의 숨쉬는 저장용기 ‘레트로 캐니스터’는 천연 유리 소재로 색이나 냄새가 배지 않으며 실리콘 패킹으로 마감해 밀폐력이 뛰어나다. ‘핸들 캐니스터’는 캡 상단에 튼튼한 일체형 손잡이가 달려 있어 뚜껑을 여닫기 쉽다.

타파웨어브랜즈는 ‘멀티 키퍼 레투스’ 그린 시리즈’를 6월 한정 출시했다. 초록빛 매실과 잘 어울리는 초록색으로, 용기가 가벼워서 운반하기 간편하다. 매실뿐 아니라 쌀과 같은 곡류나 감자 등 채소를 실은에 보관할 때도 쓸 수 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제지업체 新성장동력 주목받는 백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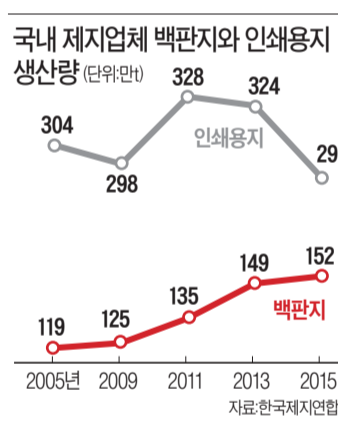
산업리포트

10년세 생산 27.7% 증가 인쇄용지 감소와 대조 고급 포장지 수요 확대 한솔 등 해외 공략 강화

일반 인쇄용 종이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백판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제지업체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다. 백판지는 화장품 약품 포장 등의 케이스로 쓰이는 종이이다.

제지업체의 간판 지종인 인쇄용지와 백판지는 물성이 다르다. 교과서 잡지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인쇄용지는 얇으면서도 잉크가 잘 먹는 게 특징이다. 백판지는 포장 재질 만큼 두껍고 뽕뽕하면서 인쇄성도 좋아야 한다. 백판지는 한쪽 면이나 양면에 표백화합필름을 사용하고 중간층에는 파지나 쇠필름 등을 써서 만든다.

한국제지연합회에 따르면 인쇄용지 국내 생산량은 2005년 304만t에서 2015년 292만t으로 10년 새 4%가량 줄었다. 반면 백판지는 이 기간 119만t에서 152만t으로



27.7% 증가했다. 인쇄용지 생산 감소는 스마트폰 전자책 등 인터넷 기기가 대중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백판지의 성장세는 화장품 포장의 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포장재를 고급화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백판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 세하, 신동제지, 한창제지 5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중 한솔이 전체 시장의 약 38%, 깨끗한나라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가 8~1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한솔제지의 지난해 백판지 매출은 4205억원으로 전체 매출 1조 3495억원의 31.2%를 차지했다.

안익수 한솔제지 이사는 “백판지는 내수보다 수출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비중을 종전 50%에서 55%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한솔제지는 현재 60만t 규모의 백판지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67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설비 보수를 통해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른 업체들도 시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기영 SK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난해까지는 해외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 때문에 판매가 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 원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백판지 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뤄져 노후설비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을 견뎌내는 업체에는 백판지가 ‘캐시플로(cash flow)’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U 그린에너지 첨단기업 몰려온다

獨·佛 등 26개사 기술상담회 7월5~6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유럽연합(EU)의 그린에너지 기업 26곳이 7월 초 방한해 국내기업들과 기술전시상담회를 연다. 이번에는 유럽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다. 국내 기업들과 수출입, 합작 및 기술 제휴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주한EU대표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가 주최하는 ‘그린에너지 기술전시상담회’가 오는 7월5~6일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EU가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EU게이 트웨이코리아 사업의 일환이다. 참

가기업은 풍력, 수력,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기술강국의 기업이 대부분이다.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영국 이코트리시티, 소형 풍력에너지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인 영국 킹스팬, 태양광 캐노피 전문업체인 프랑스 에너지이코노미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인문과 신뢰의 100년 기업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연금발전소!

99KW 설치기준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일시 :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PM 2시
- ▶ 장소 : 대구 인터빌고호텔 2층 아담대홀
-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번지

예약접수 선착순 50명

신기후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UN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한국전력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99KW 설치기준, 평균 250만원 월수익

- 태양광 발전 예상수익률 10% 이상
-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토지 분할 등기 이전)

태양광발전소 분양

- 충북 제천시 99KW 5기
- 경북 의성군 99KW 6기
- 충남 금산군 1MW 4기
- 경북 성주군 2MW 1기
- 경북 영천시 3MW 1기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 투자금 대비 어떠한 금융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
- 25년 모듈 효율 보증 (30년 운영)

한국에너지투자기업
대 2013-10-010128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회령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